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

지역과 나



임진우작 (정림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1. 서울, 도시재생을 말하다.	01
• 서울형 도시재생의 현주소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강명훈)	
2. 도시재생 연구소	03
• 서울시의 도시재생 실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준비단계의 도입과 거버넌스 구축 사업 (도시재생본부 박현정, 한휘진)	
3. 도시재생 in Seoul	07
• 도시재생 난상토론(爛商討論) 벌이다	
• 제7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수상작 발표	
• 장안평, 서울자동차 페스티벌 개최	
4. 간추린 리포트	13
• 서울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세미나	
• '메가시티에서 소셜시티로의 전환' 국제심포지엄	
5. 글로벌 도시재생	20
• 뒤셀도르프, 런던, 싱가포르의 수변 도시재생	
6. 우리동네 재생소식	22
• 지금 우리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을까?	
7. 도시재생 웹툰	26
• 2화: 정을 나누는 도시재생	
8. 부록	28
• 활성화지역 우수사례 및 제7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수상작	



서울, 도시재생을 말한다. 서울형 도시재생의 현주소

“ 다양성을 추구하며 현장으로 대응하다. ”



강명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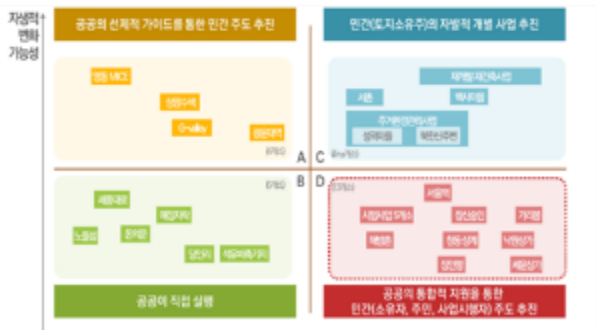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재생은 전 지구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2월에 발효되었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매년 1,000만 여명이 넘는 외국인이 찾는 세계도시로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생활권 단위의 지역들은 성장과, 쇠퇴 그리고 정체 등 다양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지역적으로 쇠퇴 지역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소적 자산과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이 살고 싶은 향기로 온 지역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2015년 1월 도시재생 전담조직으로 도시재생본부를 출범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서울'이라는 도시재생의 바탕이 되는 철학이자 비전을 담은 「도시재생 종합플랜(15.3.)」을 통해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를 한층 구체화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서울시 최초의 도시재생 법정계획)을 2015년 2월에 수립하여 '공공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재생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13개소를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방식〉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지정된 1기 활성화지역 13개소 중 절반 이상은 공청회 등 대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창신송인과 첫 중심시가지형으로 장안평지역이 활성화 계획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방향〉

13개 활성화지역을 살펴보면, 각기 성격이 다르고 참여하는 주체의 범위와 역량에 차이가 있어, 사업의 종류나 예산지원, 범위 및 시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운상가는 늦게 출발하였지만 참여하는 주체가 대부분 상인들과 상가주로 구성되어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재생사업의 방향이 일관적이었다. 또한 서울시가 세운상가의 철거를 보존으로 변경하여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존상권을 보호하고 보행자를 유인하는 보행데크 복원사업 등 재생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재생사업으로는 결코 길지 않은 1년 동안 세운상가 활성화지역은 계획수립, 주민역량 형성 그리고 공공재생 사업이 병행하며 진행되었는데, 특히, 상권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100여 개의 무허가 건물은 실무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상호 협의 아래 철거가 진행되었으며 이곳에는 산업과 문화를 복합화한 재생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운상가 재생사업은 주민들과 공무원, 지역 활동가 및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인식의 차이와 갈등이 줄어들어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운상가에는 이미 서울팬클럽이 입주하여 새로운 메이커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비어있는 아시아 상가를 새롭게 개조하여 청년창업을 위한 사회적기업인 씨즈(seed : s)와 서울시립대 '시티캠퍼스'가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장인과 새로운 청년들이 다양한 파트너로 상호 이해를 돕고 장인들의 숨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세운상가활성화지역 공공사업(17.7.준공예정) : 보행데크조성 조감도〉

아마도 현재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다시 명소'로 만들기 위해 30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보행데크가 내년 7월에 완료된다면 세운상가 재생사업은 서울역 고가 복원으로 진행되는 서울역 일대 재생사업과 함께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계획수립부터 사업시행까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실감하였다.

이에, 현재 13개 활성화지역에 대한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서울형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올해 13개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에 대하여 주민패널, 활동가와 전문가를 현장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지원조직' 등 추진주체에 관련한 사항과 사람을 모으기 위한 '주민공모사업', '앵커시설의 설치'의 만족도 및 기대감, 마중물 사업의 중요성 등을 알아보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단기간 그 결과를 평가하기 곤란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과장상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관계' 즉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참여주체의 역량강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에 긴 호흡을 가지고 점진적인 변화 속에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시의적절한 행정 자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쟁점	주요의견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의 역할정립, 적극적이고 관심있는 리더, 지속적인 참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지속성을 고려한 전담인력 배치, 시·가치구와 주민의 있는 가교역할, 안정적 센터운영체계
행정지원조직	행정 지원인력의 지속성, 주민센터 등 기존행정조직과의 협업관계, 복잡한 조직 및 업무체계 개선
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의 절차간소화 및 전담인력배치, 공모사업의 종류에 따라 계속사업 지원체계마련, 선정과정의 공정성
앵커시설의 설치	앵커시설의 향후 자립기반 확보방안, 앵커시설의 용도결정 시 주민의견수렴방안
물리적 환경변화	생활인프라(기반시설) 시설 확충, 주차문제 해결, 문화시설 및 문화 예술인 유입을 위한 거점 조성 등

〈원활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

[도시재생 연구소] 서울시의 도시재생 실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준비단계의 도입과 거버넌스 구축 사업



준비단계(후보지) 도입의 배경

서울시는 2015년 1월 도시재생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5년 1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공고를 통해 13개의 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현재 계획수립 및 실행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선도지역인 창산·송인과 장안평 지역은 이미 활성화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실행단계에 진입하였으며, 11개 지역의 상당수는 연내 계획수립을 목표로 주민공청회 진행 등의 법정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활성화 전 지역에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소통방이 개설되어 현장 추진체계를 완비되었으며, 플랫폼61 개장(창동상가), 세운보행데크 착공(세운상가), 백남준기념관 착공(창신송인) 등 공공의 선도사업이 도시재생의 성과로서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조로운 출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과정을 돌아켜보면 실행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구성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공무원, 현장 전문가들의 역량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수립과 역량강화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주민주도의 활성화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활성화지역의 2단계 선정에 앞서서 서울시는 활성화지역 지정 전 단계로 준비단계를 두어, 활성화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추진 절차>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박현정, 한휘진

이와같은 준비단계는 활성화계획 지정이전, 후보지를 지정하고 거버넌스 구축과 재생 비전, 사업 등을 구성하여 준비가 된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여 진행해 나가자는 전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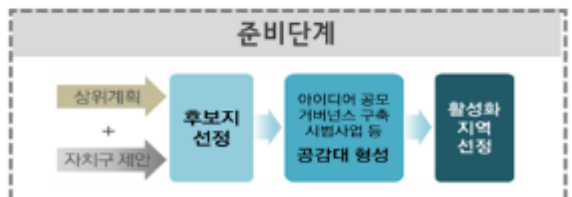


'후보지' 선정 ('16.1.~'16.6.)

본 사전단계는 2016년 1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추가지정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설명회/워크숍, 후보지 선정하여 1년에 걸친 준비단계로 기획되었습니다.

준비단계의 추진은 도시재생의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과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역량이 중요한 근린재생 일반형은 희망지사업이라고 명명하여 교육, 홍보, 공모사업 등 주민의 역량강화에 집중하도록 하였고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은 상위계획과 자치구의 제안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통해 8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각 후보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와 아이디어 캠프를 통하여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후보지 현황〉

선정 지역	지역 특성	목표 및 비전 (자치구 제안내용)	
경제기반	영등포 경인로 지역	신산업과 창조문화의 중심지, 영등포도심권 육성	
중심시가지	동묘지역 일대	동묘의 역사성 및 문구연구 상업거리	청계천변 상변마을의 지역경쟁력 극대화
	정동 일대	대한제국의 역사문화자원 보유 지역	역사적 장소성 회복 및 역사자산의 재활용화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제품 유통업 및 서비스센터/수리업	쇼핑과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등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
	마장동 일대	마장동 축산물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량리 제기동 일대	경동시장 등 10여개 시장 밀집 지역	지역경제 활력 부여, 역사 및 시장 관광자원화, 세대초월 커뮤니티 형성
	4.19 사거리 일대	4.19 민주화 묘지, 역사자원, 북한산 둘레길 등	자연·역사·문화·공통체가 어우러진 신연계 관광 중심지 육성
	독산동 우시장부지	정육 부산물 판매거리	서울 서남부 지역의 특화상권 조성 및 문화관광 자원 개발



아이디어 공모 ('16.6.~'16.7.)

우선 시민 및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제출된 좋은 아이디어가 단순 아이디어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재생사업지에 구현되도록 공모 당선자에게 향후 후보지 역별 아이디어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 후보지에 대한 물리적인 아이디어 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같은 비물리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도출하기 위하여 공모를 디자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의 후보지에 220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이 중 10개의 당선작과 11개의 입선작이 선정되었는데, 이 중 상당한 아이디어가 아이디어 캠프에서 논의되었으며, 공모당선자가 해당지역의 지역거버넌스 참여주체로 참여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청량리·제기동의 당선작 '새롭게 태어나는 새술시장'의 경우 일대 시장 11개를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새술시장'과 시장 내에서 쓸 수 있는 쿠폰 도입을 제안하였는데, 자치구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지난 8월 '명칭공모전' 개최를 통해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소규모재생사업으로 '청량카페'가 진행되고 있어, 청량카페가 개장되는 12월 즈음에는 쿠폰제 도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디어 캠프 ('16.7.~'16.9.)

지역 거버넌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100일간 진행된 '서울시 도시재생 후보지 아이디어캠프'에서는 후보지역의 추진주체가 모여 지역의 비전 및 목표를 선정하고, 핵심사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디어 캠프의 목적은 후보지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추진의지 및 참여 동력의 성장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지역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캠프는 지역아이디어캠프와 통합아이디어캠프의 두 트랙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00여회 이상 진행된 지역 아이디어 캠프에서는 자치구의 주도하에 서울시 주관부서, 전문컨설팅, 지역사회, 시민공모당선자가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활성화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3주마다 진행된 통합 아이디어캠프에서는 지역아이디어캠프에서 논의된 결과를 후보지역간 공유하며 지역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도시, 건축,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컨설팅단을 두어 자문과 토론을 통해 계획안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와 자치구의 만남이회 마련



〈지역아이디어캠프 참여주체〉



〈통합아이디어캠프 참여주체〉



특히, 이번 통합아이디어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히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총 4회의 캠프에서 지역별로 8-10인의 테이블로 나누어 구상 안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는 여러 가지 운영기법 (World cafe 방식*, 라운드 토의**, 직소 토의***)을 이용하였고, 마지막 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World cafe 방식: 지역별로 발표자를 두고 나머지 멤버들은 다른 지역 테이블을 돌며 구상안을 공유

**라운드 토의: 컨설팅단이 지역별 테이블을 돌며, 구상안을 듣고 컨설팅

***직소 토의: 지역 멤버들이 다른 테이블로 일시에 흩어져서 다른 지역 구상안을 듣고 다시 본 테이블로 돌아와서 공유

소규모 재생사업 ('16.10.~'16.12.)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의 아이디어 캠프에서 도출된 핵심사업과 연관된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본 활성화사업 전에 구축된 거버넌스를 점검하고, 본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각각 2,000만원씩의 예산이 배정되어, 핵심사업과 관련된 소규모 재생사업 구상안을 제안하였는데, 주로 핵심사업에 대한 공유를 위한 소규모 시설의 설치, 홍보를 위한 UCC 제작, 전시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규모 재생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경우, 약취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지를 조성하고, 독산동 우시장은 간판정비를 시범으로 해보는 등 참여주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차	주제	일시	목표	운영기법
1	지역의 미래상 및 구상안 공유	7.27.(수)	유사지역 둘러보기	World cafe 방식(참여자 순회)
2	핵심사업 선정·발굴 및 구체화	8.17.(수)	우리지역 심화하기	라운드 토의(컨설팅단 순회)
3	연내 실현 가능한 소규모 재생사업 발굴	9.7.(수)	지역별 재생사업 이해	직소 토의(지역별 발표)
4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 및 결과공유	9.28.(수)	최종발표, 성과공유	심사, 성과 게시, 서베이



〈아이디어 캠프 1회차(좌), 4회차(우)〉



후보지 거버넌스 과정의 의미

거버넌스의 구축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지역의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체계 구축에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계획수립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자인 자치구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번 사전단계에서는 후보지 접수 단계부터 서울시 주관부서와 자치구 주관부서가 합의를 필수요건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통합아이디어캠프에서도 시와 구가 사전에 꼭 협의해오도록 하였고, 몇몇 사안에 대한 갈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그룹의 역할에 있어서는, 지역아이디어캠프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컨설턴트들은 공무원, 주민들과 함께 구상 안을 구체화시켰고, 통합아이디어캠프 컨설팅단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전반적인 거버넌스와 구상 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통합아이디어캠프 사이에 열리는 지역아이디어캠프에서는 지역별 특성과 회의 목적에 맞도록 참석자를 정하여 자유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의 당선자들이 캠프에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상황식 아이디어 도출과 하향식 가이드라인의 절충

아이디어캠프는 자치구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아이디어공모전과 주민(상인)들의 참여로 여러 경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논의되는 상황식 과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구상안과 소규모재생사업이 잡혀가도록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미래상을 함께 만들고, 핵심목표 및 사업에 대해 구체화 하는 과정을 통해 장래의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을 먼저 체험함으로써 기존개발사업과는 다른 도시재생의 프로세스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유와 집단지성의 활용

1년에 걸친 후보지 거버넌스 구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바로 참여주체들 간의 아이디어(정보)의 공개를 통해 지역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캠프는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피드백을 받기 위하여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모든 활동내역들을 반응형 웹사이트(www.seoulforum.net)에 올려서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특성이 있는 후보지끼리는 특히 서로 배울 수 있는 집단지성을 활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교육의 기회로, 서울시에서 1단계로 추진중인 5개소(경제기반형2, 중심시가지형3)의 참여자들로부터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잘된 점, 아쉬운 점 등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후보주자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맺음말

물론 모든 절차와 과정이 완벽할 수는 없듯이, 후보지 거버넌스 과정을 고민하고, 실제로 겪으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도 도출되었습니다.

우선, 거버넌스 참여자의 대표성과 범위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체들이 참여하여야 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단순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설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참여자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시간이 필요한데, 재생사업의 제한된 시간을 고려할 때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의 특성 상 물리적 계획 부서와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한데, 시 및 자치구 내 부서간의 협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실무진 사이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성과공유나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재생 in Seoul]

도시재생 난상토론(爛商討論) 벌이다



난상토론(爛商討論).. 판을 깔다..

지난 10월 13일(목)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100인의 주민·전문가·공무원이 모여 도시재생 관련 난상토론(爛商討論)을 벌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1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다함께 모여 지역별 우수사례와 주요쟁점 사항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구분	시간	내용
1부 (도입)	15분	· 개회사 및 상호인사 · 워크숍일정및활동소개
	30분	· 지역별우수사례공유(지역별대표)
	10분	· 휴식
2부 (조별 토의)	45분	· 지역별로 섞여 조별토의 진행
3부 (토의결과 공유)	30분	· 조별 토의 결과 전체 공유
	10분	· 휴식
4부 (주요 쟁점 토의)	10분	· 주요 쟁점 설명
	60분	· 주요 쟁점에 대해 분임 토의
	10분	· 휴식
마무리	30분	· 발표(분임별) 및 마무리

〈워크숍 진행 순서〉

금번 워크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재생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시각에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매우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수사례로 서울역은 주민 반대민원 해결 과정에서의 '주민갈등관리'를, 창동상계는 종합 문화공간인 '플랫폼 창동 61'을 발표하였으며(이상 경제기반형), 세운상가는 서비스 플랫폼인 수리협동조합 '수리수리 압'을, 장안평은 지역상인연합이 자체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동차 축제'를 주제

로 발표를 하였습니다(이상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일반형 중 가리봉은 주거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역사 문화전시와 기록공간으로 활용하는 앵커시설 '별집'을, 상도는 골목길에서 동네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 '골목계단 영화제'를, 성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성수동만의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DB구축과 홍보에도 활용하는 '성수애(愛)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신촌은 연세대 3개 학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대학-지역 연계 수업'을, 암사는 협동조합 주도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 취사활동을 지원하는 '공유부엌'을, 장위는 1년간의 내실 강화 기간을 거친 후 운영임을 선출하는 방식의 '주민협의체 운영'을, 창신송인은 최초로 실행단계에 접어든 지역으로서 센터의 역할에 대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해방촌은 지역 내 인종과 문화 다양성을 활용한 지역축제 '해방촌 페스티벌'을 우수사례로 발표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유형	사업지	우수사업 사례(안)
경제기반형	서울역	주민갈등관리
	창동상계	플랫폼 창동 61 운영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세운상가	수리협동조합(수리수리 압)
	장안평	자동차 축제
근린재생 일반형	가리봉	별집 리모델링
	상도	골목계단 영화제
	성수	성수애(愛)서
	신촌	신촌-지역 연계 수업
	암사	공유 부엌
	장위	주민협의체 운영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해방촌	해방촌 페스티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수사업 사례〉



난상토론(爛商討論).. 그리고 공유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수사업 사례발표에 이어 재생사업 과정에서 의미 있었던 점과 어려웠던 점, 새롭게 배우게 된 점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생사업을 실시하면서 의미 있었던 일을 물어본 결과, 주민들은 사업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주민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재생사업의 희망을 보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민이 재생사업에 참여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의미 있었다고 하였으며, 현장 참여자는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낀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재생사업시 어려웠던 점을 물어본 결과 주민들은 주민들의 참여 및 주민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부재를 아쉬워 하였고, 공무원들은 주민의 무관심과 비협조,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대립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현장 참여자 또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의견대립에서 어려움을 느꼈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롤모델의 부재 또한 재생사업 진행을 더디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재생사업 시 실천해야 할 항목으로 주민은 주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적극적인 홍보 등을, 공무원은 주민참여 및 사업역량 개발 등을 꼽았습니다. 현장 참여자는 주민참여 및 공동체 강화, 구체적인 실행방법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행정조직, 주민공모사업, 앵커시설 운영, 성과지표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6대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토론을 통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졌습니다.

- 6대 주요쟁점 사항 -

1. 도시재생지원센터
 - 계획 수립 후 실행단계에서의 센터 역할
2. 성과지표
 - 지역별 성과지표 설정, 조사 및 분석 방법, 활용방안
3. 앵커시설 운영
 - 앵커시설 운영, 관리주체, 활용방안
4. 주민공모사업
 - 주민공모사업 예산 규모, 예산 집행 방법, 심사 기준
5. 주민협의체
 - 일반 주민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유도
6. 행정조직
 - 관련부서 간 협업, 민관 소통 증진

(6대 주요쟁점 사항)

주요쟁점 사항을 토론시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주제별로 함께 분임토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각자의 지역에 돌아가 다음 단계를 대비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관련 주요쟁점 사항 관련 토론의 주요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개선방향	개선시 기대효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확대 및 인력확보 -방향성 설정 및 사전 교육 실시	-지속성 확보 및 원활한 소통확보 -교육을 통한 사업운영 역량 강화
앵커시설 운영	-소통 및 전문가 조언 -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	-원활한 소통 및 전문성 확보 -지속성/영속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주민공모사업	-사업기간 증대 및 연속성 확보 -정확한 정보제공 및 관련 교육 실시	-주민참여 확대 및 주체간 원활한 소통 -사전 지식에 기반한 원활한 운영
주민협의체	-주민참여 확보 및 원활한 소통 지원 -방향성 확립 및 강한 협의체 구성	-주민참여 증가에 따른 주민협의체 내실화 -지속성 및 영속성 보장
행정조직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자율성 확보 -주민과 원활한 소통 도모	-방향성 재고 및 성장에 근거한 원활한 소통 -효율성 증대

<주요쟁점 사항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금번 워크숍은 사업지역의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이 모두 모여 그간 추진한 다양한 지역별 재생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개회사



워크숍 행사장



토론 진행 1



토론 진행 2

[도시재생 in Seoul]

제7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수상작 발표



아이디어 모아...?? MORE...!!

지난 10월 13일(목), 서울시는 미래 도시재생형 주거형태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시행한 「제7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전은 기존의 '마을만들기' 부문 외에, 1~2인 가구의 급속 증가로 인한 가구 유형의 다양화 및 소형화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협소주택 등 대안주택' 부문을 신설하여 2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실제 마을만들기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자유대상지' 방식(자유롭게 구역 선정)과 '지정대상지' 방식(공모전에 적합한 구역 등 지정)을 통해 보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목) ~ 26일(금)까지 이틀간 접수한 결과, 총 41개 대학, 250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하여 78개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부문은 총 45작품, 169명이 참여하였으며 13개 작품을 제출한 중앙대를 비롯하여 가천대, 한경대, 연세대, 인천대 등 총 25개 대학에서 참여하여 마을만들기 기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였습니다.

'협소주택 등 대안주택' 부문은 총 33작품, 81명이 참여하였으며 5개 작품을 제출한 순천향대를 비롯하여 송실대, 경기대, 건국대, 한남대 등 19개 대학에서 참여하여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포스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습니다.

9월 8일(목)에 실시된 부문별 심사를 통해 '마을만들기' 부문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8점과 '협소주택 등 대안주택' 부문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총 17점을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마을만들기			협소주택 등 대안주택		
	단위액	계(점)	총 금액	단위액	계(점)	총 금액
소 계	-	11	3,200만원	-	6	9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1	1,000만원	300만원	1	300만원
우수상	300만원	2	600만원	150만원	2	300만원
장려상	200만원	8	1,600만원	100만원	3	300만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시상 규모〉


시상식은 오는 11월 22일(화)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3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마을만들기' 부문 최우수상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1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작에 대한 작품설명과 더불어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공모전 출품계기 및 소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해(제6회) 출품한 작품 중 용산구 청파동 1가의 '언덕 위 푸른유산 청파1가'와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동 젊음충전 프로젝트'라는 제안 작품을 실제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상작품 중 일부를, 자치구 및 주민의 사업의지, 실현가능성 및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곳에 실제 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며, 해당 작품을 공모한 학생 일부는 '마을만들기 예비전문가'로

발굴하여 사업에 직접 참여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마을만들기' 부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전반적으로 학생공모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작품이 많았다"라며 "학생들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매년 작품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협소주택 등 대안주택' 부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학생들에게 생소한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지침을 넘어 다양하고 폭 넓게 접근한 작품이 많았다."라며 "좁은 대지에서 협소주택을 넘어 도시적 접근, 경사지 활용, 유연한 건축계획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학생들을 통하여 제안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분	작품명	사업대상지	소속대학	응모자	비고
최우수상 (1팀)	틈새시장	성북구 동소문동	인천대학교	손인수 외 3인	지정대상지
우수상 (2팀)	우리 동네는 소소한 문화가 있는 동네	성북구 동소문동	남서울대학교	임형환 외 4인	지정대상지
	사람을 간직하는 동네, 사직동	종로구 사직동	중앙대학교	최유진 외 3인	자유대상지
장려상 (8팀)	공향동을 비추는	강서구 공향동	이화여자대학교	김민지 외 3인	자유대상지
	셋 버리 만남 곱하기, 청춘더하기, 소통나누기	은평구 신사동	인천대학교	하상윤 외 2인	지정대상지
	봉봉한 봉원마을	서대문구 봉원사길	연세대학교	백선주 외 3인	자유대상지
	1인 가구, 마을의 중심이 되다	성북구 동소문동	한국교통대학교	오선민 외 2인	지정대상지
	신사동 선사인	은평구 신사동	가천대학교	김은지 외 4인	지정대상지
	신동방동, 신영동 전통한지로 방방곡곡 소통하다	종로구 신영동	가천대학교	홍진기 외 3인	지정대상지
	Go 鄕 : 서울에서 고향찾기	관악구 중앙동	공주대학교	심지예 외 4인	지정대상지
	100년 한옥마을 익선,이웃소리를 듣다	종로구 익선동	성균관대학교	전은주 외 4인	자유대상지

〈'마을만들기' 부문 수상작 현황〉

구분	작품명	사업대상지	소속대학	응모자	비고
최우수상 (1팀)	Public Affair	용산구 용산2가동	순천향대학교	오혜린 외 1인	자유대상지
우수상 (2팀)	대안주택1호창신점 마을은청년과함께성장합니다	종로구 창신동	건국대학교	한형진 외 2인	자유대상지
	CASE House	동작구 상도4동	한밭대학교	김주연 외 2인	자유대상지
장려상 (3팀)	시작하는 청춘남녀를 위한 딸기맛 청춘하우스	서대문구 창천동	호서대학교	양대현 외 1인	자유대상지
	COMBINATION	금천구 시흥동	한남대학교	노준호 외 1인	자유대상지
	마당을 들여오다 사람을 들여오다	서대문구 대현동	순천향대학교	김수린 외 2인	지정대상지

〈'협소주택 등 대안주택' 부문 수상작 현황〉

[도시재생 in Seoul]

장안평, 서울자동차 페스티벌 개최



축제의 장을 열다..

「2016 서울자동차 페스티벌」이 '16.10.8.(토) ~ 9.(일) 2일간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행사는 장안평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의 붐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성동구, 동대문구,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성동문화원과 2016 서울자동차 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하였습니다.

장안평 지역은 지난 40년간 서울시 중고자동차 시장의 만형으로 과거 큰 경제적 성과를 거뒀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중고차매매시장문화와 소비자의 수요 경향에 대응하지 못하여 과거의 영광은 오늘의 추억으로 남겨진 지역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까지 장안평을 새롭게 재탄생시켜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자동차 시장으로의 지역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며,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선도하는 자동차 산업복합단지조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여가고 있습니다.

장안평 자동차산업 재도약을 위한 첫 움직임인 “2016 서울자동차 페스티벌”은 장안평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동차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체험하고, 누구나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자동차관련 축제의 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축제기간 중 서울시 최초로 조성되는 장안평 전역의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 착공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10월 8일(토)에 있었던 축제의 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축제 참석

I-SEOUL U

“다 함께 차·차·차”

2016 서울자동차 페스티벌

10.8(토)~10.9(일)
지하철5호선 장안평역 일대

차에 관심 있는 누구나
보고, 먹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 및 기념 행사 10.20(토)~21(일)	전국 유일의 자동차 박물관 10.20(토)~21(일)	국내 유일의 자동차 박물관 10.20(토)~21(일)	10.20(토)~21(일)
종교 및 기념 행사 10.20(토)~21(일)	전국 유일의 자동차 박물관 10.20(토)~21(일)	국내 유일의 자동차 박물관 10.20(토)~21(일)	10.20(토)~21(일)
자동차 관련 행사 10.20(토)~21(일)	전국 유일의 자동차 박물관 10.20(토)~21(일)	국내 유일의 자동차 박물관 10.20(토)~21(일)	10.20(토)~21(일)
자동차 관련 행사 10.20(토)~21(일)	전국 유일의 자동차 박물관 10.20(토)~21(일)	국내 유일의 자동차 박물관 10.20(토)~21(일)	10.20(토)~21(일)

자동차 특성상 및 자동차부품 교체소요량, 일반 방문객은 10,000원 (10,000원) 중등용대형버스 대용량
 행사문의: 020-8842-2133 홈페이지: www.seoulautofest.kr

주최: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6 서울자동차 페스티벌 포스터〉

자를 위한 축하 공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축제기간에 즐길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도모한 결과 약 3만여명의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가장 좋아할 행사였죠?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차량용 보조배터리 등 차량 유지시 필수품



축사



개막식 행사



개막식 행사



축하공연

으로 자리잡은 액세서리를 인터넷 가격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프리마켓 및 장터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중고자동차 경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장안평 매매조합 회원사 64개 상사가 최근 2~3년식의 국산 베스트 셀러 차종(소나타, 아반떼, 모닝 등) 30대를 매입원가에 상품화비용만을 포함한 노마진으로 8일(토)~9일(일) 2일간 경매를 진행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중고자동차 구매 의사가 있음에도 자동차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중고 자동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던 소비자라면 금번 축제 현장에서 진행 된 '카 마스터' 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카 마스터'가 중고차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와 함께 장안평 일대를 동행하며, 희망하는 차종 및 차량에 대한 정보와 정비에 대한 조언 등 도움을 주었습니다. '카 마스터'와의 동행 및 구매를 원하는 경우 우선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접수를 하고 약속된 날 서울자동차 축제운영본부로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니, 내년에 열릴 자동차 페스티벌에 참가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마켓 및 장터



중고자동차경매

또한 지역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동차 무료 정비 및 무료 생활 튜닝 교실, 광택, 블랙박스 업그레이드 등의 강의를 진행하여 평소 자동차 및 용품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레스업카 컨테스트에서는 전국 자동차 매니아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컨셉의 차량을 선보이며 국내 유명 레이싱모델의 출사 행사도 동시에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평소 잘 볼 수 없었던 슈퍼카 및 다양한 드레스업카를 배경

으로 레이싱모델과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는 독특한 시간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의 자리에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빠질 수 없겠조? 전국 청소년 드론대회 장애물 통과 경기가 초등, 중등, 고등부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한국모형항공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경기 종료 후 부문별 포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연령 구분 없이 가족 단위로 관람에도 좋은 이벤트였습니다.

더불어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맛있는 음식...! 다채로운 세계음식과 김소봉, 남성렬, 진경수 등 스타 셰프 3인방이 선보이는 고품격 메뉴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10월 8일(토) 15:00에는 축제와 더불어 중앙물재생센터 대강당에서 서울시가 주최하고 동남성장위원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튜닝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튜닝산업 및 자동차부품 재제조 산업의 발전 방안 방향 제시를 위한 대토론회'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드레스업카 컨테스트



전국 청소년 드론대회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애프터마켓으로 성장할 장안평에서 '2016 서울 자동차 페스티벌'이 선사하는 즐거움은 그간 어느 축제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독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거듭날 수록 대표적인 자동차 특화 축제로 자리잡을 '서울 자동차 페스티벌'을 통해 활력이 가득한 장안평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차량진단 무로서비스 (일부항목 제외) 기간 10월8일(토) ~ 10월9일(일) 장소 장안평역 5번출구 / 동양 카센터 신청자 성민, 진화번호, 정비 차량명 (선택순 접수) 신청자 특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자동차관련 기념품 증정 / 초보 운전자와 여성운전자 우선진단 차량진단 성동광진구 자동차정비협동조합 전문정비사 행사문의 070-8842-2133 홈페이지 www.seoulautofest.kr 이메일 luckysyan@naver.com	중고차 경매 기간 10월8일(토) ~ 10월9일(일) 참여차종 최근 2 ~ 3년식의 국산 베스트셀러카 행사규모 경매(2일간 60대) 행사장소 장안평매매단지 앞 도로에 행사차량 전시 및 경매 행사가격 매입원가에 상품화비용만을 포함한 노마진 경매방법 매일 30대 이상의 행사차량을 출품하여 노마진으로 현장에서 경매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사무국 전화 070-8842-2133	튜닝산업 및 자동차 재제조 부품 발전 방안 대 토론회 일시 2016.10.8(토) 15:00 - 18:00 장소 중앙물재생센터 대강당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동남성장위원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 주최 신진자동차문화 정착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사무국 전화 070-8842-2133
--	--	---

[간추린 리포트]

서울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세미나

‘메가시티에서 소셜시티로의 전환’ 국제심포지엄

“ 서울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세미나 ”

세미나 개요

서울연구원이 개원2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2040년에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검토한 내용을 주제로 서울시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2016.9.27.(화)
장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주최	서울연구원
참석자	변미리, 장남종, 맹다미, 오은주, 김원호, 이창 박사(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복남(서울대학교 교수) 손기민(중앙대학교 교수) 그 외 일반시민, 대학생, 공무원 등
목적/취지	서울의 미래에 대한 연구발표 및 토론으로 시민공감 및 과제 발굴 등

세미나 개최 모습



※ 출처: 한국건설신문

세미나 구성 및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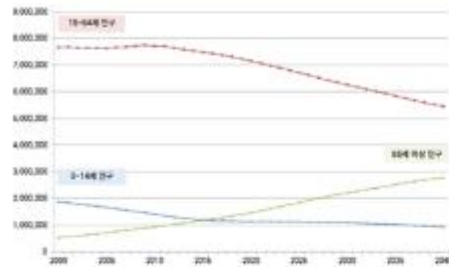
세미나는 인구, 주거지, 인프라, 산업, 교통 등 분야별로 2040년까지 천만 시민의 도시 서울이 변화하게 될 미래의 모습을 알기 쉽게 분석하였으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분	주제
1부 : 익숙한 미래, 생소한 도전	
1	미리 가 본 서울, 2040
2	미래 서울의 도전과 선택
2부 : 치료나 수술이나? 서울을 처방하다	
1	서울의 늪어가는 주거지, 어떻게 할 것인가?
2	수술대 앞에 선 서울의 인프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3	제4차 산업혁명, 서울의 선택
4	혁신의 놀이터로 진화하는 서울 제조업
3부 :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사고의 전환	
1	20년 후 서울의 도로 모습
2	끊김없이 거침없이 달리는 대중교통
3	지동차, 소유에서 공유로

미리가본 서울, 2040

- **달라진 서울의 인구지도, 세대간 무게중심의 이동**
 - 인구 960만, 50세 이상 인구 전체의 51.4% 차지
 - 65세 이상 인구 30.4%로 급격한 고령화 진행
 - 30세 미만 24%로 반토막, 생산가능인구 급감
- **새로운 가족 출현: 1인가구 일반화**
 - '10년 24.4%, '20년 28.9%, '35년 30.8%
-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주류화**
 - 은둔형·적극적 중고령자, 자유로운 싱글, 소셜(공동체)부족

매년 30만명씩 생산가능인구 줄어들어, 2040년 545만명 이르러



미래 서울의 도전과선택

- **전환기를 맞이한 서울의 5대 도전과제**
 - 노후화, 저성장, 기후변화, 세계화, 스마트화
- **2040년 서울의 새로운 선택 5가지**
 - 사람·주택·지역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 강남, 서북, 동북, 서남을 '쿼트로 엔진'으로 활용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창의적 도시공간 마련
 -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개선시스템 구축
 - 공항, 철도, 지상·지하교통이 연계된 네트워크 필요



서울의 늪어가는 주거지 어떻게 할 것인가?

- **늪어가는 주택, 서울의 주거지는 더 열악해질 것**
 -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
 - 특히, 아파트는 현재의 89%가 재건축대상 예상
 - 노후주거지 안전, 사회적 고립 등으로 문제 야기
- **2040년 서울 주거지정책의 판을 새롭게 짜야**
 - 공공이 선계획, 선투자의 변화된 정책방향 모색
 - 주거지 단위로 통합적인 공간복지정책 구현 필요
 - 인구, 가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층주거지 관리

공간복지를 실현하자

주거지 단위로 통합적인 공간복지정책을 구현

- 주거지 노후화에 따른 공간적 변화 및 양극화 현상인 사회경제적 격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복지정책 구현 필요
-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과 연령대로 구성된 거주인이 공존하도록 유도
- 주거지 단위로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거, 교육, 노후, 이동 및 노인 등 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적용



수술대앞에선 서울의 인프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서울의 인프라는 중환자실에 대기 중

-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전체의 48.3%
- 도로는 대부분이 보수대상, 교량도 점검 필요
- 노후화가 방지되면 인명피해 등 막대한 손실
- **인프라 총괄조직 신설과 평가시스템 도입 절실**
- 런던, 도쿄 등 선진국은 인프라 투자 진행 중
- 재정비로 손실감소, 국가적 경제효과 제고 시급
- 시민경제와 생명을 위해 새로운 제도 필요

서울의 선택, 치료나 수술이냐



제4차 산업혁명, 서울의 선택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하는 서울

- 한국은 제조업 국가, 정부도 제조업 혁신 추진
- 서울의 제조업은 악화일로, 준비와 대응도 미비
- **세계도시는 이미 제4차 산업에 총력전**
-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은 국가총력전 전개 중
- 4차 산업혁명, 공간이 생산요소의 하나가 되는 것
- **서울, 기술공간 복합체로서의 재탄생**
- 도시는 학습의 장소이며 국가생존을 위한 과제
-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민을 위한 혁신공간 필요

변화의 의미 - 시공간의 압축

일과 생활의 경계가 사라진다 -

뉴스위크는 마이클 길린 야기대처, 전술과 시지컬
- UCLA에 2000년 LA의 미래 모습 전망을 요청

1. LA의 건축양식은 놀이하고 일체화공간과 같은 다양도 건물 증가
2. 주저와 고층의 분리 대신 모든 사재를 연결하는 주저와 일무 복합 중심적인 통합
3. 통근노선은 공회, 수평성, 소양성의 통합을 통해 변화
4. 일과 생활이 구분 없어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

- 마이클 길린은 "주거와 업무가 복합된 수상해집" 제안
- 전술과 건축사들은 "미래의 사회적 교류와 학습, 프로젝트 협업이 무미한 사무용 건물보다는 시교류형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
- 시지컬-UCLA는 대청산리대청산 중심으로 녹지공간과 직장들이 들어가는 복합체안

혁신의 놀이터로 진화하는 서울 제조업

서울은 아직 혁신 추수형(catching-up) 전략

- 2014년 서울의 제조업 종사자는 약 28만명
-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액 도쿄의 1/2수준에 불과
- 타 기관과 협업이 적고 기존 제품·기술모방 위주
- **가치중심 성장을 위한 '뉴 매뉴팩처' 정책 필요**
- 실시간 시장분석, 시제품 생산 등 공공이 적극 지원
-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고충해결 관련 플랫폼 구축 등



20년 후 서울의 도로 모습

- **빠른 기술 발전과 다양한 교통수단의 등장**
 - 전기차, 퍼스널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 등
- **미래에도 도로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는 지속**
 -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교통수단 다양화 등
- **사람과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도로 재편**
 - 지상도로는 보행자 중심의 환경친화적 공간
 - 지하공간은 확장된 첨단 교통시스템 도입
 - 지상·지하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환승시스템

글로벌 도로 정책 기초

도로의 주인공은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프로미나드 PROMENADE

가장 큰 도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
보행자 전용 길과 광장

사람 중심의 지상 공간 조성
지하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끊김없이 거침없이 달리는 대중교통

- **미래 서울의 교통체계는 대중교통이 근간**
 - 자동차의 진보는 편리하나 교통정체는 해결불가
 - 많은 사람을 편리하게 수송가능한 대중교통 필요
- **급행열차 등 혁신적 서비스로 이동시간 단축**
 - 높은 혼잡에도 급행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명확
 - 미래 대중교통은 직선화, 고속화 등 개선 필요
 - 하나의 노선에서 환승 없이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
 - 정체구간을 뛰어넘기 위한 입체적 도로시설 건설

장거리는 급행대중교통, 중 단거리는 개인교통수단과 자동차



자동차, 소유에서 공유로

- **'소유의 종말' 시대 공유교통의 부상**
 -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카셰어링 등 공유교통 확대
 - 공유교통 활성화는 주차공간 마련이 필수적
- **골목길 주차문제도 공유로 해결**
 - 골목길 불법주차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 주차공간은 공동체의 자발적 운영이 가장 효율적
 - 자투리 필지 등 가용주차공간 확보도 병행 필요
- **복잡한 교통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 개인성향, 편의성 고려한 통합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는 공유교통



“ ‘메가시티에서 소셜시티로의 전환’ 국제 심포지엄 ”

심포지엄개요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 따라 많은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소셜시티'라는 정책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독일의 경험과 서울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 보고자 독일 에버트 재단, 서울시, 서울연구원이 협력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2016.10.12.(수)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19층)
주최	에버트재단, 서울시, 서울연구원
참석자	마틴 쭈어 네덴(독일 도시문제연구소장) 르네 보어만(에버트재단 과장) 조권중(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희선(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그 외 일반시민, 대학생, 공무원 등
목적/취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경험 공유와 토론으로 서울시 재생정책 방향 정립

메가시티(Mega City)란?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을 말하며, 글로벌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규모를 갖추고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인 거대도시를 가리키는 용어

소셜시티(Social City)란?

-1999년 독일에서 소개된 도시개발 이념의 하나로, 경제적·사회적으로 도시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도시개발 프로젝트와 포용성장(다양한 주체의 참여, 특히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 지속가능한 도시의 재개발을 의미하는 사회/경제적으로 균형을 이룬 도시를 의미하는 용어

심포지엄구성및주제

특별 연설

메가시티에서 소셜시티로 가는 길,
협치와 혁신으로 만드는 삶의 특별시 서울
-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

Session 1

통합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으로서 '사회적 도시'
- 마틴 쭈어 네덴 교수

포용적 서울 도시계획, 도시 아젠다와 정책 프로젝트
- 조권중 박사

Session 2

'사회적 도시구역'(Social Quartier)
- 르네 보어만 과장

사람 중심의 '서울형 도시재생'
-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심포지움 개최 모습



심포지움 개최 모습



『 사회적 도시구역』 (Social Quatier)

사회적 도시구역은 지위, 계층, 출신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도시 내 다양한 구성요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편리한 교통 등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데 주택은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거비용을 유지하고, 국공유지는 민영화를 최소화하며, 기존건물의 유지관리도 중요합니다. 인프라는 필요한 것을 걸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시 이동식 인프라도 활용하여야 하며, 장애인, 유아, 노약자도 원하는 곳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최선의 답을 찾기 어려운 도시문제를 차선의 답을 찾기 위한 학습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르네 보어만(Rene Bormann)
독일 에버트재단과장



※ 출처 독일라이프치히 도시발전·건설국

『 사람 중심의 서울형 도시재생』

서울은 오랜 전통의 역사도시이자 인구 천만의 메가시티이며,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기 압축성장을 겪어 온 서울은 저성장시대를 맞아 '서울형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잃어버린 곳을 새롭게 재생하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서울시 정책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례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크게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자형, 일반형으로 구분가능하고, 도심활력 및 일자리 창출, 역사문화자원 보존,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의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시민참여와 함께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은 도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정책 여건과 미래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소가 중심이 되는 '서울형 도시재생'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진희선 (Jin Hee Seon)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장



[글로벌 도시재생]

뒤셀도르프, 런던, 싱가포르의 수변 도시재생

“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공간: 수변 ”

■ 수변공간에 대한 관심 증대

수변공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변공간의 활용 방안도 과거의 치수와 이수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뒤셀도르프, 런던,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 수변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시사점과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 독일 뒤셀도르프 메디언하펜 사례 분석

메디언하펜(MedienHafen: Media Harbour) 지역은 1960년대까지 경제도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석탄 및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철도와 항만시설도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고, 메디언하펜은 산업시설 이전, 인구감소와 실업을 증가, 저임금, 불량한 생활환경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에 1976년 시의회는 베르거하펜(BergerHafen)과 출하펜(Zollhafen) 구역을 폐쇄하는 대신, 이곳에 라인타워(240.5m, 1981)와 NRW주 의회 의사당(1988)의 새로운 건물을 배치하였습니다. 198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카이슈트라세(Kaisstraße)와 스페디치온슈트라세(Speditionstraße)를 중심으로 메디언하펜이라는 이름의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30ha)로 조성하기 시작하여, 방송, 정보, 통신 뒤셀도르프의 방송·정보·통신 관련 부문 종사자가 약 4만 명에 달해 시 전체 고용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디언하펜 지역은 단계적으로 재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1978~1991)에는 라인타워와 NRW주 의회 의사당 등이 조성되었으며, 2단계(1989~1999)에는 메디언하펜에 주로 개별 건물 단위로 개발이 진행하였는데, 건물의 50%는 리모델링을, 50%는 신설하여 신규 건물이 혼합되도록 재생하였습니다. 3단계(1999~현재)는 현재 진행 중으로 호텔과 오피스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4단계는 계획 중으로 향후 메디언하펜 지역의 발전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보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디언하펜은 수려한 도시·건축 디자인으로 유명한데, 건축목표를 랜드마크, 공공성(녹지·인도 등), 아이덴티티로 설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 정부에서 가이드 라인을 수립 후 토지매각시 세계적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도록 요구하여 독특하고 뛰어난 디자인의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프랭크게리가 설계한 노이어 출호프(Neuer Zollhof)는 대표적인 랜드마크인데, 독특한 디자인으로 다채로운 수변경관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내 건물에 광고를 전면 금지하여 깔끔한 보행환경과 거리 경관을 유지하고,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 철골구조의 화물 트레인 등 일부 기존 시설과 건축물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메디언하펜 개발의 파급효과는 뒤셀도르프시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800개의 기업과 8,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약 4억 유로의 투자유치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총 16억 유로의 투자유치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뒤셀도르프는 주정부의 보조로 1993년 구도심과 연결되는 2km의 강변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보행자전용도로(Rheinuferspromenade)로 조성하여 도시녹지축을 연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변도로로 단절되었던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구도심에서 메디언하펜까지 연결되는 보행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메디언하펜의 도시재생은 35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인타워와 출호프



메디언하펜 전경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 사례 분석

지난 수백년 간 런던은 서쪽과 템즈강 북쪽을 중심으로 번영해 왔으며, 이로 인해 남북 간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테이트 모던으로 개조하기 이전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 건물은 런던 32개 자치구 중 가난한 자치구에 속해 있었고, 1891년 가동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주변 환경 슬럼화가 계속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템즈 강 부둣가의 방치된 물류창고 지역에 슬럼화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 정부는 템즈 강 유역의 산업시설 황폐화 현상을 개선하였고, 그중 하나의 프로젝트가 템즈 강의 남북을 연결하는 밀레니엄 브릿지와 테이트 모던 갤러리입니다.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살린 채 화력발전소 내부를 개조하여 탈비공화였으며, 가장 높은 층은 전망공간으로서 통유리 너머로 런던을 조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21세기를 앞두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런던에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영국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의 남북을 연결하는 밀레니엄 브릿지는 템즈 강 양안으로 중요 거점시설을 연결하고 있어 강으로 단절된 강 남북을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보행으로 연결함으로써 템즈 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테이트 모던 갤러리 내부



런던 밀레니엄 브릿지

또한 갤러리는 특이하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자선단체를 조직하여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일부 참여시키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클락키 사례 분석

클락키(Clarke Quay)는 과거 싱가포르의 무역중심지로, 교역을 통한 상품들을 저장해두는 물류창고 밀집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싱가포르 강의 오염이 심화되자 싱가포르 정부차원에서 물류사업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환경개선사업에 돌입하였습니다.

클락키 개발의 특징은 5블록에 걸친 기존의 물류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모든 건물들을 복원·개조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클락키는 1977년 ~ 1987년까지 지역의 역사적인 건물을 복원하고 토지이용을 상업,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993년 클락키는 부동산회사인 캐피탈랜드(Capitaland)의 소유가 된 후 10년 뒤에 다시 한 번 개발되었는데, 이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설계사인 알슨은(Alsop Architects)는 클락키의 오래된 건축물 외관을 재설계하고, 싱가포르 강으로 테라스를 확장하여 새로운 강변공간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을 덮는 파고라를 설계하여 지역의 온도를 4도가량 낮추었으며, 수변공간의 접근성과 이용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현재 클락키는 싱가포르에서 최고의 밤거리를 자랑합니다. 블록과 수변을 따라 전 세계의 음식을 야외 테이بل에서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노후된 건물의 외관을 리모델링한 클락키 거리만의 이색적인 분위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클럽과 펍 등으로 인해 클락키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고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수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리버크루즈(RiverCruze) 등 클락키는 2008년 아시아 베스트 워터프론트 개발(Cityscape Asia Awards, Best Waterfront Development in 2008)의 영광을 누렸으며, 연간 1,4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싱가포르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리버크루즈



클락키 야경

맺음말

각국의 수변재생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과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계획과 개발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둘째로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수변공간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변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세계도시정보UBIN에 있으며, 동의없이 무단복제(부분복제포함) 및 가공, 임의로 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재생소식]

지금 우리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을까?

“ 활성화지역별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

재생사업지역전체

구분	내용															
제목	도시재생 굿마켓 페스티벌															
일시	2016.12.13.(화) (13:00 ~ 19:00)															
장소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관2															
알림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지역별 대표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장을 마련하고, 대토론회, 마케팅 등 자립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하는 행사임 도시재생사업 추진 2년 경험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마련과 함께 경매, 소원을 담은 재생연 만들기 등 각종 행사도 함께 개최함 추진프로그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 10px 0;"> Good Festival Zone ((구분)) Good Market Zone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자립방안 모색 대 토론회 (오프닝)</th> <th style="width: 15%;">13:30~15:00</th> <th style="width: 55%;"></th> </tr> </thead> <tbody> <tr> <td>VMD와 함께하는 상품 디스플레이 경진대회</td> <td>15:30~16:30</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Good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연계상품 소개 전시 골목거리 등 다양한 체험 운영 ② 도시재생 우수제품 객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과 전문모임이 함께 진행 </td> </tr> <tr> <td>SNS마케팅 실천교육</td> <td>16:30~17:00</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아나하다 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 Market 운영 </td> </tr> <tr> <td>도시재생 사업 우수성과 공유의 장</td> <td>17:00~18:30</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전문가 마케팅 상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 디자인, 마케팅 등 전문상담 </td> </tr> <tr> <td>지역제품 어색 경매 행사 (경품행사)</td> <td>18:30~19:00</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도시재생 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사업 추진성과 등 홍보 참여업체 소개 및 로또 Wall </td> </tr> </tbody> </table>	자립방안 모색 대 토론회 (오프닝)	13:30~15:00		VMD와 함께하는 상품 디스플레이 경진대회	15:3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Good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연계상품 소개 전시 골목거리 등 다양한 체험 운영 ② 도시재생 우수제품 객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과 전문모임이 함께 진행 	SNS마케팅 실천교육	16:3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아나하다 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 Market 운영 	도시재생 사업 우수성과 공유의 장	17:00~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전문가 마케팅 상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 디자인, 마케팅 등 전문상담 	지역제품 어색 경매 행사 (경품행사)	18:3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도시재생 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사업 추진성과 등 홍보 참여업체 소개 및 로또 Wall
자립방안 모색 대 토론회 (오프닝)	13:30~15:00															
VMD와 함께하는 상품 디스플레이 경진대회	15:3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Good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연계상품 소개 전시 골목거리 등 다양한 체험 운영 ② 도시재생 우수제품 객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과 전문모임이 함께 진행 														
SNS마케팅 실천교육	16:3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아나하다 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 Market 운영 														
도시재생 사업 우수성과 공유의 장	17:00~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전문가 마케팅 상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 디자인, 마케팅 등 전문상담 														
지역제품 어색 경매 행사 (경품행사)	18:3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도시재생 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사업 추진성과 등 홍보 참여업체 소개 및 로또 Wall 														

플랫폼 창동 61

구분	내용
제목	공연
일시	2016.11.12.(토) ~ 11.24.(목)
장소	플랫폼 창동 61 레드박스 (1,4호선 창동역 1번 출구)
알림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록, 재즈, 국악,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의 11월 공연 • 잠비나이, 선우정아, 갈루아 콘:바, 시나위&레그타임 KERNEL STRIP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구분	내용
제목	가리봉봉 아트지트(아트)
일시	2016.11.18.(금) ~ 11.20.(일) (16:00 ~ 19:00)
장소	우마길 벌집 앵커시설(가리봉동 125-8)
알림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문화재단과 함께 두근두근 필시름 • 구로힐링맘과 함께 미상으로 파자마를 만들어 노동자의 삶 체험 • 지구인 공정여행과 함께 가리봉 투어 • 프로젝트 북과 함께 사진촬영 • 극단 하하하의 창작극 '구두담이 소녀' 연극



암사동 도시재생지원센터

구분	내용
제목	2016 암사도시재생마을학교 하반기 운영(6,7기)
일시	6기: 2016.11.10.(목) ~ 12.1.(목) 7기: 2016.12.6.(화) ~ 12.27.(화)
장소	6기: 암사동 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센터2층) 7기: 암사시장 내 문화센터 '마실'
알림 사항	<p>마을학교 6기(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착순 모집(20명)을 하되 모집인원 증가시에도 교육이수 가능 <p>마을학교 7기(바리스타 실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학교 6기 수료자나 수강 참여율이 높은 분 20명 모집



■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

구분	내용
제목	성수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교육 (2016년 성수 도시재생 아카데미)
일시	2016.11.3.(목) ~ 2016.12.8.(목) 매주 목요일 14:00~16:00
장소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 3층 세미나실 (지역경제혁신센터) ※5·6강의 경우, 언더스탠드 예비뉴에서 진행 예정
알림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수강 가능(지역 제한 없음) • 도시재생에 있어 마을활동가의 역할 및 한계, 지역자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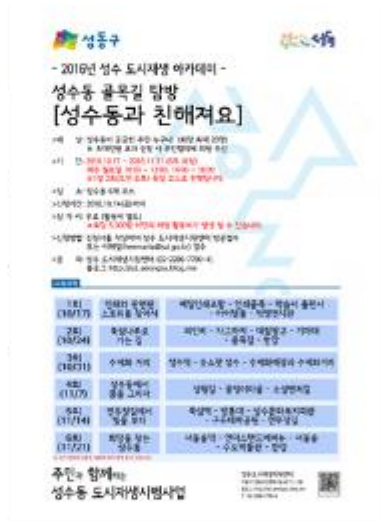


2016년 성수 도시재생 아카데미
성수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교육

1차 11.3(목) 14:00~16:00
2차 11.10(목) 14:00~16:00
3차 11.17(목) 14:00~16:00
4차 11.24(목) 14:00~16:00
5차 12.1(목) 14:00~16:00
6차 12.8(목) 14:00~16:00

주최: 성수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성수동 도시재생지원사업

구분	내용
제목	성수동 골목길 탐방 [성수동과 친해져요] (2016년 성수 도시재생 아카데미)
일시	2016.10.17.(월) ~ 2016.11.21.(월) 매주 월요일 10:00~12:00/14:00~16:00 ※1일 2회(오전-오후) 동일 코스 진행
장소	성수동 6개 코스(수제화거리 등)
알림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수동이 궁금한 주민 누구나(지역 제한 없음) ※ 회당 최대 20명, 최대인원 초과 신청시 주민협의체 회원 우선 참여



2016년 성수 도시재생 아카데미 -
성수동 골목길 탐방 [성수동과 친해져요]

1차 10.17(월) 10:00~12:00 / 14:00~16:00
2차 10.24(월) 10:00~12:00 / 14:00~16:00
3차 11.7(월) 10:00~12:00 / 14:00~16:00
4차 11.14(월) 10:00~12:00 / 14:00~16:00
5차 11.21(월) 10:00~12:00 / 14:00~16:00

주최: 성수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성수동 도시재생지원사업

■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구분	내용
제목	제3회 대학-신촌 지역연계수업 타운홀미팅
일시	2016.12.1.(목)
장소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지하 1층)
알림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하반기 신촌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대학-지역연계수업을 통해 도출된 신촌 연구성과를 지역주민-상인 등과 공유 • 서대문구소재 4개 대학 9개 학과 참여



제3회 대학-신촌 지역연계수업 타운홀미팅

2차 타운홀미팅('16.5.30)



숫자로 보는 2016 서울형 도시재생

주민참여 및 역량 강화 부문

※ 2015 ~ 2016년 10월까지 누적 통계자료(낙원상가를 제외한 12개소)

추진주체 역량



지역(마을)공동체 조직 수

586 개

주민협의체 구성원수

2,093 개



주민협의체 회의 수

305 회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자 수

3,733 명



지역 내 활동가 수

45 명

공동체활동 참여도



지역 내 축제 횟수

42 회

지역 내 축제 방문객 수

17,120 명



공동체 프로그램 수

137 개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 수

3,922 명



주민설명회(공청회) 참여자 수

4,981 명

도시재생사업 참여도



주민공모사업 수

184 건

지역소식지 발간

82 회



사회적경제 조직구성



사회적 경제조직 수(예비포함)

99 개

[도시재생 웹툰]

2화: 정을 나누는 도시재생



“ 정을 나누는 공간.. 도시재생! ”





I · SEÓUL · U
너와 나의 서울



발행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재생정책과 여장권 과장 한휘진 팀장 김유리 원영구 박현정 홍건표 민경욱 강진구

도시재생정책연구반 김종헌 김성훈 임정수(문의사항 : ljs9169@seoul.go.kr)